

전남

옥과농협 주부대학원 개강  
사회봉사 프로그램 진행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최근 농협 문화복지센터에서 조영래군수를 비롯해 이영기 농협 곡성군지부장, 각급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부대학원 개강식을 가졌다.

주부대학원에는 지난 94년부터 시작한 주부대학 4기에 걸쳐 배출한 294명의 졸업생 중에서 여성조합원 김순례(69·옥과면 주산리)씨 등 86명이 입학했다.

옥과농협은 유명강사를 초빙해 다 음달 초순까지 웃음 여성의 아름다움, 와인교육, 목재 가구기, 나이트댄스 등 평생교육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 리더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상철 조합장은 "여성이 건강해 야 농촌에 희망이 있다"며 "여성에게 웃음을 가지는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완도 '청해진 희망강좌'

코미디언 엄용수 강연



완도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해진 희망강좌'를 마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월 희망강좌는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엄용수씨를 초청해 지난달 30일 금요일 금일중학교 금강관에서 김종식 군수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완도군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도 한 엄용수 씨는 이날 "웃으면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주민들에게 웃음보따리를 선사했다. 주민들은 각 읍·면지역을 순회하는 앵콜 강좌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김종식 군수는 "희망강좌를 통해 군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파충류의 모든것 합평으로 모인다

'파충류 생태공원' 내년 개관 순조... 뱀주제전시관 나비축제 전 개장

'에코 친환경 생태도시' 합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양사·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합평군은 뱀을 이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기 위해 합평군 신광면 가덕리 일대에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양사·파충류 조성공사에 들어가 올해 안에 끝조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부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방문자 센터, 조경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완료했다.

또 총 160억원(국비 96억, 지방비 64억)의 사업비 중 올해까지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사

업비로 국비 43억원, 지방비 28억원 등 총 7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특히 군은 조만간 공모를 통해 60억원 규모의 뱀 주제 전시관 건립공사 사업자를 선정, 뱀 모양의 독특한 건축물로 건축한 뒤 내년 나비축제 전에 임시개장을 하고 내년 말 공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합평군 신광면 가덕리 일대 8만5천여㎡에 조성되는 양사·파충류 생태공원에는 ▲뱀 주제 전시관 ▲파충류 생태관 ▲악어 연못, 악어공원 ▲양사·파충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에서 뱀 주제전시관은 자연 서식지를 구현하는 특수한 건축방식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접목

시켜 국내 여타 전시관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차별화된 '녹색성장 생태기술'로 건설된다.

동식물 먹이사슬을 유지 관리하고 태양과 공기, 이산화탄소, 습도 등 환경적 요소를 철저히 계산해 동형식의 전시공간에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구현함과 동시에 시설역시 지열과 환기장치 구조재료인 텍스톤(Texlon)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생태전문 전시업체인 '버터플라이랜드 아시아' 조민선 대표는 "자연환경을 똑같이 구현해 생물을 실제로 사육할 수 있는 자연 방사장을 만들어 부화, 허물벗기, 동면 등의 모든 과정을 연중 관찰·체험할 수 있는 '에코(Eco) 전시기법'을 활용

하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자연 속 생태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러한 전천후 생태공원은 합평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평군은 뱀연구소를 설립해 신약개발을 하는 한편 생태공원과 연계해 파충류를 이용한 가족과 학대 등을 관광상품화해 지역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뱀 등 양사·파충류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체험 공간이 될 양사·파충류 생태공원이 또 하나의 특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 합평엑스포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역사관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종합 생태 테마관광의 명소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합평=황원희기자 hwang@



국화 왕인문 앞에서 '찰칵'

2일 '2009 영암 왕인박사 국화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국화로 만든 대형 왕인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영암 국화축제는 오는 22일까지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계속된다. /영암=이상희기자 lsh@

순천에 국내 최대 음악분수

호수공원 오늘 준공... 첨단·자연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순천시 조례동 조례호수 주변에 음악분수 시설 등을 갖춘 호수공원이 조성됐다.

순천시는 조례저수지와 주변 17만여㎡(5만1천400여평)에 사업비 163억원을 투입해 호수공원을 착공, 1년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3일 준공식을 갖는다.

시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 저수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어 2007년 운곡

택지와 호수 공원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농촌공사와 협의의 통해 영구 임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다.

조례 호수공원은 호수와 임야부는 자연 그대로 보존해 사계절 녹지공간

을 갖도록 했고, 호수 주변에 산책로와 운동기구를 배치해 주변 마을과 신도시 주민들의 휴식·여가 공간을 넓혔다.

또한 길이 74m, 폭 14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수변형 음악 분수시설'을 갖추고 상류에서 공원 내로 흐르게 하는 길이 90m의 실개천을 만들었고, 조형물 형식의 어린이 놀이 시설과 LED 등을 설치해 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만들었다.

/동부채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독립운동가 양한묵 선생 뜻 기린다

화순군, 내년 이양면에 기념관 건립키로

화순군에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묵(1862~1919) 선생의 기념관이 세워진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일제에 항거하며 목숨까지 지강 양한묵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내년 이양면 강성리 송석정 주변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 전시관에는 지강 선생 유품과 영정을 전시하고, 2층엔 영상전시실과 체험 학습 교육장이 들어서게 예정이다.

기념관 주변에는 지강 선생 충훈탑과 추모비 등이 들어서는 '지강 선생 광장'이 건립된다.

화순군은 총 사업비 25억1천만원 가운데 7억5천만원은 국가보훈처로

부터 보조를 받고 7억9천만원은 군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양씨 문중은 9억6천100만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강 선생의 고향이 해남이지만, 화순 능주에서 3년간 공직생활(세무관)을 했고, 묘소가 화순읍 양남리에 있어 양씨 문중에서 매년 3월 1일 제사를 지낸다"며 "지강 선생의 혼을 기리고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한묵 선생은 일본강점기 개화운동가체인 진보회와 천도교 중앙총부를 결성해 독립운동을 했으며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송기용기자 song@

장흥댐 주변 이웃에 장학금 지원·사랑의 집수리

수공 서남권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단장 김승효)이 장학금 지원과 사랑의 집수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서남권 관리단은 지난달 29일 장흥댐 주변 지역인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화순군 4개 지자체 11개 읍면에서 장학금 46명을 선별해 3천19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이와 함께 최근 장흥지역작업센터와 공동으로 장흥군 유치원 조양리 고승민씨 집을 방문해 낡은 부엌벽을



허물고 재시공하는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벌였다.

김승효 단장은 "올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총 8가구를 선정해 2천100만원의 예산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새얼굴

"산림소득 높이고 강한 조합 만들터"

오영호 구례산림조합장



"조합원들의 산림경영 소득향상과 함께 역동성 있는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산림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치러진 구례군 산림조합장에 당선된 오영호(58) 당선자는 "산림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임산물의 유통사업 참여와 활성화로 조합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군민이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목목을 생산·공급하는 등

산림조합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료투표의 과반수가 넘는 57%를 얻은 오 당선자는 구례군청에서 33년간 산림공무원으로 재직된 임업전문가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민순(52)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취임식은 18일 열린다.

/동부채재본부=이진태기자 ik5826@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National Law & Economics) featuring a large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omeCon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a large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branch in Suncheon.

Advertisement for Jeonnam Sunshin Real Estate (Jeonnam Sunshin Real Estate) featuring a large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branch in Suncheon.